

# 오늘부터 재외 국민투표... 30만 해외 표심잡기

### 文, 재외한국학교 지원 협약·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安, 재외국민위 신설·동포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30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경쟁에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과 안민석 지능본부장은 재외 국민투표 하루 전인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측과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문 후보 측은 재외동포 자녀 1만300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전세계 16개국, 35개 재외한국학교 및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재외국민교육지원센터 설립

을 추진하고,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외국민 권익과 안전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또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국제·병무·세금·건강보험 등 관련 법안 정비, 한글·역사교육을 위한 동포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영사콜센터 확충 등 영사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안전을 강화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

지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등록된 재외유권자 22만2389명 중 14만8225명이 투표해 71.1%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재외투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29만4633명이다.

재외유권자는 거주 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과 함께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인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제적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

다.

재외투표소는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설치됐다.

투표는 총 5일의 기간 중 재외선거위가 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재외투표소마다 운영 기간이 다르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함께 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전당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

16면 이내 분량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남도 아름다운 섬·강·산에서 봄 만끽 하세요

### 전남도, 봄 여행주간 맞아 'YOLO 오시오' 운영

전남도가 29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17 봄 여행주간을 맞아 남도의 아름다운 섬, 강, 산 등 자연풍광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대표 프로그램 'YOLO(올로) 오시오'를 운영한다.

봄 여행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것으로,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공동으로 남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YOLO(올로) 오시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군과 지역 관광두레PD, 코레일, 금호고속 등이 함께 참여해 여행상품 6개를 개발하고, 보성다향대축제에 숨겨진 보물찾기와 함평나비축제의 가족들이 체험, 강진의 남도 명품길 걷기 행사 이벤트 3개도 마련했다.

남도의 봄을 만끽하도록 신안군에서는 섬, 바다, 갯벌 등 특화상품으로 이색적 갯교 카약체험이 있는 임자도, 배비쪽 축제, 염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슬로 시티 중도 버스 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완도군과 금호고속은 '가고 싶은 섬' 생일도의 금곡해변, 용출리 해변 갯돌밭 등 트레킹할 수 있는 버스 투어상품(봄

주 출발)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 여수 섬여행학교에서 운영하는 1박2일 섬 생태관광상품은 금오도, 안도동고지 등 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바다 카약, 무인도 탐방, 숲 트레킹, 슬로푸드, 바다캠핑 등을 체험하도록 꾸며졌다.

곡성 섬진강두꺼비 주민여행사는 기차마을 종착역인 가정역 인근 섬진강변에서 작가와 관광객이 함께 완성하는 공공미술 체험을 펼치고, 섬진강변 산책과 두께의갯길 마을 투어도 추진한다.

코레일은 순천역 인근의 버스투어를 연결하는 '기차타고 떠나는 남도자유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 호남 고속철도를 타고 순천역까지 오면 여수 화도도 트레킹, 순천·보성 힐링 투어, 여수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3개 코스가 준비됐다.

여행주간 프로그램, 할인 관광업소 등 자세한 정보는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또는 남도여행안내 관광 홈페이지(www.namdogoogood-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북핵 불용 의지 재확인·도발 저지' 결의 다진 美·中·日

### 트럼프, 아베·시진핑 연쇄 통화

### 인민군 창건일 핵실험 차단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저지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통화는 북한이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함과 일본 호위함들이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에 돌입하고 중국 공군 전폭기가 비상대기하는 한편 북한은 칼빈슨호를 수장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오늘 통화에서 북한에 도발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해 나가자는 데 완전하게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 "말과 행동으로 이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



북한 인민군 창건일(25일)을 하루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던 24일 오후 주한미군 U2 고고도 정찰기가 작전을 마치고 경기 오산공군기지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에 즈음해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통화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

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전화로 논의한 지 2주도 안 돼 이뤄진 것으로 양국 정상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동시에 유관 각국은 자체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유관 각국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한반도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나는 시 주석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행자부, 지방교부세 광주 321억·전남 2547억 추가 교부

행정자치부는 24일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853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정산분은 지난해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잉여금이다.

전남은 2547억5000만원으로 경북(2799억5000만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광주는 321억3000만원을 받는다.

행자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인 9조7000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1조8096억원)와 특별교부세(280억원)로 교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163억원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준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이달 말 지자체로 보내지고, 특별교부세 정산분은 연내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한다.

강원(2090억4000만원), 경남(1886억9000만원), 전북(1833억원) 등 도에는 많이 교부되고, 세종(35억2000만원), 서울(72억9000만원) 등은 적은 편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정산분은 지자체의 긴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

전남도가 도내 농민들에게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벼 보험 가입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가입확대 전략회의'와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24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제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ha(3000평) 당 순보험료는 약 45만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9만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년 고을 담양 지명 999년

제19회 **담양 푸른대숲, 숨쉬는 자연 대자연축제**

2017. 5. 2(화) - 5. 7(일) 6일간

죽녹원 및 전남도립대학교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JeollaNamdo 한국관광공사